†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전은숙 글라라, 김보미 로사
다음주 미사 독서: 김보미 로사, 황지혜 레지나
금주 미사 복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다음주 미사 복사: 최고은 소피아
금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주 미사 해설: 윤보연 소화데레사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05 교무금: $ 20
감사헌금(김승욱 바오로): $ 50
생미사: $ 40
성경책(3 권): $ 150

합계 : $ 465

금주 봉헌봉사: 윤보연 소화데레사
다음주 봉헌봉사: 우명희 카타리나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5 월 3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5 월 10 일 저녁 7:00, 장소: 페이스북클럽 참고)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고자 다음의 우화를 생각해 봅시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위의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해 살았습니다.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그것이 싫었지만 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 역시 맛있는 살코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는 그것을 먹는 것이 크나큰 고역이었지만 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에 한계가 생겼고 결국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와 사자는 헤어질 때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소는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자를 사랑하였습니다. 사자 역시 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사랑하였기에,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그 최선이 오히려 최악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다고 합니다. '사'는 생각할 '사'(思)를, '량'은 헤아릴 '량'(量)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랑이 소와 사자에게 있었다면, 둘은 끝까지 사랑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이중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부활 제 5 주일 **2013 년 4 월 27 일**

<제 1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4,21 ㄴ-27
<제 2 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5 ㄴ

화답송

시편 145(144),8-9.10-11.12-13 ㄱㄴ(◎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31-33 ㄱ.34-35

유다가 방에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30 봉헌: 211 성체: 197 파견: 136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오래전 선배 신부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당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 일찍부터 매일같이 새벽미사에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당의 여러 봉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성당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살아 있는 성녀'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할머니의 장례미사를 치르고 난 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성당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만큼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으니 며느님도 그분의 뜻을 받들어 예비자 교리에 나오세요."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흔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신부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싫습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당에 나가게 되면 죽어서 천국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텐데, 생각만해도 정말 싫습니다." 집 밖에서는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던 그 할머니가 정작 함께 살고 있던 며느리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행위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은 없지만, 이것만큼 실천이 어려운 말씀도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 입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질 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 요한 3,18)

말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며 거짓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과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어떤 사랑의 행위라도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강요되는 계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삶,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 공지사항

1. 봄 야유회가 5 월 19 일(일요일)에 Elver Park 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식사, 게임 그리고 운동을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사는 5 월 18 일 토요일 5 시에 St. Paul 성당에 있을 예정입니다.
2. 매월 첫 주일 (5 월 4 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 입니다. 교무금 납부는 신자들의 의무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납부: 황성필 회계사목위원). 교무금 납부 봉투 및 교무금 약정서는 친교실 회계 담당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교무금 납부 홍보 이후 적극적으로 교무금 납부에 참여해 주신 형제님 및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5 월 4 일 미사 후, 5 월 정기 사목회의가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은 5 월 19 일 야유회 준비와 성당 홍보 및 선교 (웹사이트 개설안)입니다.
4. 4 월 공동체 식사가 오늘 미사 후에 있습니다. 음식 준비해주신 1,3 구역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새로 오신 교우 소식>

지난 주에 올해 봄부터 재료공학과 대학원과정으로 오신 주용호 가브리엘, 허지영 부부가 새로 오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사회학과(UW-Madison)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임채윤 형제님, 정연희 가브리엘라 자매님, 임어진(자녀) 가족과 남예나 자매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 시부터 2 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여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셔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5 월 3 일 (금) 저녁 8 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러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